

전통 서사체에 나타난 금기 ‘위반’의 의미 편차 연구

정종진*

— <차 례> —

1. 서론
2. 금기의 개념과 성격
3. 위반되는 금기의 몇 가지 차원
4. 전통서사체에 나타나는 금기 위반의 유형과 성격
5. 결론: 금기 위반 편차의 함의

<국문초록>

본고는 우리 전통 서사체들 속에서 보이는 금기에 대한 위반의 여러 차원과 그 위반의 변별되는 성격들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금기 위반의 양상들을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반의 성격을 신성성의 공고화, 인간 한계에 대한 도전과 좌절, 욕구의 가상적 실현, 당대 질서에 대한 도전과 변화 지향, 갈등 해소와 엔트로피의 완화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소항목의 제목들이 말해 주듯이 금기의 위반에는 천상적 질서와 현세적 질서, 도전과 좌절, 당위와 욕망, 부정적 기능과 긍정적 기능 등의 대립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계 맺고 있다. 금기의 속성이 양가적이었던 것처럼 위반의 양상과 의미도 양가적이다. 또한 금기와 위반의 관계는 마치 태극의 음양처럼 서로 밀어내는 듯 끌어안고 있다. 위반은 질서를 침범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전통서사체들에서 보이는 금기와 위반의 이야기들은 이러한 역동성을 고려하면서 그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 가톨릭대 ELP학부대학 교수.

주제어 금기, 위반, 질서, 양가성, 전통서사체

1. 서론

금기는 문학작품 일반의 내용과 문학적 형상화의 원천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오랜 기간 동안 문학 작품 속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금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로써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 짓게 한다. 금기는 신과 인간의 경계이고 우리와 남의 경계이며 정결과 부정¹⁾, 설명 가능한 것과 설명 불가능한 것들의 경계가 된다. 이를 통해 금기는 우리 세계의 질서를 부여한다.

금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나 발견된다. 금기를 지킴을 통하여 하나의 공동체는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여하며 안위를 구하고 질서를 유지시킨다. 그런데 금기가 있는 곳에는 또한 위반도 반드시 따르게 되고 그에 대한 처벌도 있게 된다. 금기라고 하는 것이 한 공동체의 안위와 존속,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에 그 금기를 침범하거나 위반하는 일은 그 공동체에 위해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금기를 침범하고 싶은 강렬한 호기심이 있으며, 인간의 본능은 언제나 금기를 어기고야 한다. 당위로써 지켜야 함을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마땅히 그러해야 함과 지금 그러함을 놓고 갈등하는 일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본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는 금기를 만들어 지키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반을 통제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위반의 욕구를 온전히 억

1) Mary Douglas,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the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유제분·이훈상 역, 『순수와 위험』, 현대미학사, 1997, 183~219쪽 참조.

압할 수는 없기 때문이며, 위반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어떤 경우는 그 위반을 발전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²⁾

금기와 위반 그리고 처벌은 시대마다, 사회와 문화마다 다양한 형태와 성격을 띠고 나타난다. 그러므로 금기와 위반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는 일은 인간과 인간들의 질서와 정체성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인문학적 통찰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한국 전통서사체들에서 금기와 그에 따른 위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해 보되 특히 위반의 양상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그간 학계에서는 문학작품에 나타난 금기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금기를 작품 속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동일한 요소³⁾로서의 화소로 다루면서 대부분 설화문학으로 그 대상을 국한시키고 있다.⁴⁾ 그러나 금기라는 말이 지닌 함의를 생각해 보면, 신화나 민담에서 반복되는 특징적인 서사단위로 국한시키기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확장시켜 볼 필요가 있다. 금기와 위반의 이야기는 설화의 시대와 함께 서사 전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서사체들에서도 여전히 의

2) 정종진, 『금기 형성의 특성과 위반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의미』, 『인간연구』 23호, 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 2012, 83쪽.

3) “모티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4) 앞선 연구들은 금기의 문제를 주로 설화의 성격 분류나 전파론적 입장에서 다루거나, 역시 설화의 범주 안에서 구조분석을 통한 작품론을 시도하면서 설화 전공집단의 의식구조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54.; 조희웅, 『한국설화의 연구』, 국문학연구회, 1969.;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1.; 최래욱,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장장식, 『금기설화연구』, 『한국민속학』 17집, 민속학회, 1984.;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5.; 강진욱, 『구전설화 유형군의 존재양상과 의미층위』,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85. 등이 대표적 업적이다.)

미 있는 지평으로 존재하며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기와 위반의 문제는 설화문학 외에도 수많은 예술 장르들과 대중문화에서 소재나 주제로 널리 운위되고 있으며, 더욱이 오늘날의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여전히 금기는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금기는 태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 사회와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작용하고 있고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알게 모르게 금기들을 지키고 생활화하고 있다. 또한 금기는 법이나 제도와 같은 공식적인 규범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의 사회적 통제 장치로서 의식주는 물론 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역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같은 맥락에서 금기라는 말이 지닌 함의를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금기가 위반되는 여러 가지 층위들을 추출해 보려고 한다. 사실 금기는 그 자체로서는 지켜져야 할 것이지만 금기와 동시에 공존하는 위반이 있고, 이 위반에 의해서 금기의 의미는 역동적이게 된다.⁵⁾ 위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위반 주체의 성격과 위반의 의도, 위반의 결과로서의 처벌의 양상 등을 통해 당대인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단면들과 그 인식 변화의 추이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위반의 몇 가지 차원들을 유형적으로 나누어 고찰한 다음 그 위반의 유형들을 통해 우리 전통서사체들 속에 나타나는 금기와 위반이 어떤 성격과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전통서사체들에서 나타나는 위반의 의미의 편차들을 고찰해 보는 일이 될 것이며 더불어 전통 서사체들에서 보이는 세계에

5) 금기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시대상황이나 지식의 전파, 이념이나 신앙의 변화 등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정체성의 변화는 금기 침범을 이끈다. 위반에 의해 금기는 완화되거나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금기로 대체되기도 한다. 그래서 금기와 위반은 대립적인 것이지만 또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의 일면도 엿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전통 서사장르들 간의 변별적인 자질의 일면도 들추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금기의 개념과 성격

1) 두 방향의 금기

의례에서 금기는 그 의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져야 할 조건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풍요와 축복의 바라던 기원을 이뤄내기 위한 장치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기는 의례의 중요한 한 구성요소인데 프레이저가 금기를 소극적인 주술로 파악한 것은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인 것으로 보인다.⁶⁾ 프레이저는 이 책에서, 미개인은 그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터부에 종속시킨다고 보았다. 또, 터부와 주술(呪術)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터부는 실질적인 주술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적극적인 주술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반면 소극적 주술 혹은 터부taboo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적극적인 주술로서의 마술의 목적은 의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며, 터부의 목적은 바라지 않는 결과를 피하는 일로서 이들은 모두 유사성의 법칙과 접촉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다.⁷⁾

프레이저의 설명을 고려해 보면, 금기의 상대적이며 적극적인 형태는 하물 혹은 신격을 향한 일종의 직접적인 기원이나 청원에 해당하는 것이

6) J.G. Frazer, 신상웅 역, 『황금가지』, 동서문화사, 2007, 49쪽.

7) J.G. Frazer(2007), 위의 책, 48쪽.

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금기는 땅을 향한 즉, 인간들 쪽을 향한 금지 규칙이다. 그것은 어떤 기원이나 신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인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인 것이다. 이로 볼 때, 금기와 관련되는 방향성은 하늘과 땅, 위와 아래, 성과 속과 같은 일련의 두 가지 방위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로 금기(禁忌;taboo)라는 말의 뜻은 쿡 선장의 항해를 통해 폴리네시아어 터부(tabu)에서 전해진 것으로, 금제(禁制), 기휘(忌諱) 등 나라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나 주된 의미는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어떤 행위나 대상을 신성하다거나 위험하다는 의례적인 구분에 따라 그 행위나 대상의 사용을 금하는 것인데⁸⁾, 프로이드가 지적하고 있듯이 성스러운 것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성스러움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부정하고 위험한 것을 피하게 하여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두 방향⁹⁾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는 『說文解字』나 『禮記』에서 ‘禁’이 사회적, 종교적 힘에 대한 금지의 뜻을 지니며 ‘忌’란 자아의 심리상태에 대한 억제를 강조하고 있음¹⁰⁾을 떠올린다면, 금기라는 말에 대해 동서양이 닮은 인식과 설명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에도 역시 금기는 이분법적인 방향의 사고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는 금기형성의 가장 분명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

8)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1984.; 종교사전 편찬회 편, 『종교학 대사전』, 한국사건연구소, 1998.; 『Pascal 세계대백과사전』, 동서문화사, 1997.; Hartmut Kraft, *Tabu: Magie und Soziale Wirklichkeit*, 김정민 역, 『터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거의 모든 것』, 열대림, 2005, 47~56쪽 등 참조.

9) Sigmund Freud, *Totem und Tabu*, 강영계 역, 『토텐과 터부』, 지식올만드는지식, 2009, p.33.

10) 蘇鈺崙, 『韓·中 産俗禁忌 比較研究』,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4, 10쪽.

다. 금기는 선/악, 삶/죽음, 오른쪽/왼쪽, 우리/남 등의 이분법을 만들고, 이 중 한 쪽은 정당하고, 밝고, 정결하며, 성스러운 쪽으로 질서화하고 그 반대의 것들은 부당하고, 어둡고, 불결하며, 속된 것으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이분법이 특정 주체에 의해 새롭게 혹은 새로운 기준으로 생성된다면, 이 이분법은 특정 주체의 목적과 이익에 부합토록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것은 하나의 공동체의 존재 의미를 신성화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고, 특정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유지 수단이 되기도 할 것이다. 또한 권력의 유지나 지배 질서의 재편과 지속에도 더없이 긴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전통 사회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특정한 신앙으로 결속력을 높이거나, 성리학적 이념으로 계급질서를 굳건히 한다거나, 독재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일 등은 모두 이런 예들이다. 금기는 신앙이나 권력, 이념과 신념의 프레임이 되고 율타리가 되면서 체제유지의 원리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면, 금기는 성스럽게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서 하지 말도록 하는 것과, 위협하고 부정한 것을 피하기 위해 하지 말도록 하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 방향의 금기는 결국 현재의 질서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작용한다.¹¹⁾ 본

11) 이와 관련하여 터부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최창조의 설명도 참고할 만하다. 그는 터부의 사회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개인이나 집단의 죄를 분류하고 확인해 주며, 개인이나 사회가 처한 불안정과 위협한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위협에 처한 그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중략) 둘째, 본질적으로 터부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터부가 제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 복종의 메커니즘과 그 성격이 매우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제의적 기능을 수행하는 터부가 사회적 일체감(때로는 복종)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최창조, 앞의 책, 46쪽.) 이는 금기가 집단을 보호하고 집단의 유대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고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우리 전통서사체에서 나타나는 금기 역시 이 같은 속성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2) 현재진행형의 금기

서구에서 금기의 신화적 원형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출발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는 신이 금지한 것이다.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신으로부터의 금기를 침범하는 행위이며 그것은 선과 악에 대한 호기심, 알고자 하는 욕망 호기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신과 인간의 영역은 태초부터 엄격히 구분되고 경계지워져 있다.

우리 전통 고전소설에서도 적강화소¹²⁾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천상에서의 금기를 어긴 경우에 지상으로 추방되는 것이다. 즉 금기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적강(謫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세계는 죄를 씻는 장소이고 천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는 시련의 공간이다. 그만큼 천상과 지상은 꿈과 현실만큼이나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꿈과 현실이 넘나들듯이 현실의 인간이 언제나 끊임없이 꿈을 꿈꾸듯이, 꿈과 현실은 그 끝자락을 물고 있으며 천상과 지상 역시 단절이되 완전한 단절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천상에서 아무리 경계지으려 하고 처벌을 하여도 수없이 좌절하지만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또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는 생각이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를 중심으로 파악하였을 때와 현실 중심의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때와는 서로 차이가 있다. 신과 제의·종교·상징 등이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원리일 때에는 신적인 힘을 믿고 그러한 세계의 원리를 신적인 힘에 순종하고 상징의 제의들을 통해서 교통하며 살았다. 그

12) 적강화소에 대한 설명은,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출판부, 1980, 2~33쪽 참조.

러나 현실을 상징적, 추상적 관념적으로 보기보다는 현실 그 자체를 사실적으로 이해하려 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자신의 개별적 존재에 대한 의식과 인정물태(人情物態)가 중요시 되면서 인간의 의식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데카르트 이후 서구의 근대적 인식과 그 전개 과정을 굳이 들어 견주어 볼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근대적 인식변화는 자발적인 것이었으며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따라서 금기의 마나¹³⁾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약해지고 금기의 나무이자 “지식의 나무”¹⁴⁾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되면서 금기를 대하는 인식이 달라지고, 금기 위반에 대한 처벌의 성격도 점차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종래에는 금기의 위반은 죽음이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처벌이었다면, 후대에 이르면서는 그 처벌은 매우 약해지거나 희화화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금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힘인 마나가 약해지기도 한 것이지만, 시대의 변화, 지식의 변화, 상황의 변화 등을 통하여 금기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금기 수용자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며, 정체성의 변화는 이전의 금기를 완화 혹은 파괴하거나 또 다른 새로운 금기를 만들어 낸다.

3. 위반되는 금기의 몇 가지 차원

금기가 있는 곳에 위반이 있다. 모든 금기에는 위반이 따른다. 신이 내린 금기조차 그러하다. “모든 죄악의 출발이 되는 호기심은 금지된 지식

13) mana.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 또는 특별한 지위나 권위를 가진 사람의 특수한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말로서 금기를 강화하는 아우라로 작용 한다. 금기 수용자가 갖는 믿음과 신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한다.

14) 최창조, 『금기의 수수께끼』, 호모사피엔스, 2003, 37쪽.

의 탐욕에 이르며, 이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절대적인 ‘불복종’의 죄악/전락을 낳게”¹⁵⁾되는 일은 어찌면 인간적 숙명이다. 금기를 어기고 싶은 마음, 보지 말고 먹지 말라는 금기에는 보고 싶고 먹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어김없이 작용한다. 기어코 상자를 열어보는 판도라나 선악과(善惡果)를 따먹고야 마는 이브,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고 외치는 복두장이¹⁶⁾의 모습들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내재된 어찌할 수 없는 본능적 행동을 본다. 금기와 위반의 관계는 금기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인 욕망이 맺는 관계이다. 인간에게 있어 위반의 욕망을 온전히 억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반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으며 금기에 대한 침범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금기에 대한 위반이 나타나는 양상은 한결같지 않다.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 그리고 인간들의 인식이나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등에 따라 사뭇 다른 국면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특히, 신과 인간의 관계를 포함한 인간의 세계인식 변화에 따른 위반의 양상들을 살펴보고 한다. 그 중 유사한 것들을 묶고 차이 나는 것들을 나누어 볼 때, 금기 위반의 양상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 신화에서도 금기는 위반된다. 동서양의 신화들에는 수많은 금기와 위반이 존재한다. 신화에서의 금기는 신이 인간에게 직접 부여한 것이다. 미약한 인간으로서 감히 어겨서는 안 되는 강력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기는 파기된다. 널리 알려진 그리스 신화의 예들 뿐 아니라 우리 <단군신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금기를 지키면 신성한 질서의 세계에서 살아가거나 그 세계로 편입될

15) 최창모(2003), 앞의 책, 37쪽.

16) 『三國遺事』 卷二, 『四十八景文大王』條.

수 있고 일정한 지위도 획득할 수 있다. 반면에 금기의 위반에는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판도라의 호기심이 인류의 불행을 초래하고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난다. <단군신화>에서 금기를 지킨 곰은 인간으로 변신하여 하늘과 땅을 잇는 고귀한 혈통 속에 편입하지만, 금기를 지키지 못한 호랑이는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고 추방된다. 그래서 하늘이 제시한 금기를 어기는 일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역으로 하늘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는 일이며, 위반은 인간에게 있어 파국이고 버림받는 일이다. 신의 질서 속에 있는 인간들의 이야기인 신화 속에서 금기의 위반은 오히려 신의 위력을 더욱 강하게 떨쳐 보이고 신성한 질서를 공고화하는 역할을 한다.

나) 이 같은 신과 인간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숙명적 한계에 도전하는 인간들이 생긴다. 우리 문학사 최초의 노래인 <공무도하가>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강을 건너는 백수광부로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결국 좌절하고 말거나 좌절 할 줄 알면서도 도전하려는 인간의 이야기이다. 이는 불행한 모습이라 할지 모르나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초월적인 모습일 지도 모른다. 인간은 현실의 한계를 안고 살아가지만 또 언제나 그 너머를 꿈꾸는 존재이다. 위반의 또 한 측면은 주어진 한계를 뛰어 넘고자하는 초월의 욕망에서 나온다.

다) 위반에 대한 충동과 욕구 자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해 금기가 침범되고 위반이 일어나는 것은 금기 위반의 가장 본연적인 속성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경우들에서 위반은 성스러운 세계 속에서 초월적인 힘에 의해 그 범주 속으로 재질서화 되거나 원상태로 회복되어 버리고 인간의 자리는 지워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처벌보다는 위반의 충동과 욕구 그 자체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위반은 좌절되고 처벌받기는 하지만 위반에의 시도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반은 인간이 인간 자신의 눈높이로 세계를 보려고 하는

시도이다. 그래서 위반이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위반 속에서 인간적인 면모들이 정감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세계의 질서의 중심이 점차 하늘로부터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며 금기 수용자들의 세계인식 변화의 편린들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라) 이제 금기의 위반은 현실 질서 속에서 일어난다. 위반은 당대 질서 속의 규범이나 제도의 모순과 부조리가 낳은 금기에 침범하고 도전하고 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위반은 기존의 잘못된 현실에 대한 고발이고 비판이며 새로운 질서로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 위반은 그 자체로 공동체의 안위와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동조하며 긍정적 발전 가능성을 전제한 위반은 기존의 금기를 위협한다.

마) 한편 위반이 위반을 위한 위반으로서, 질서 유지를 위한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질서는 시나브로 무질서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점점 헤이해지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위반이 필요하다. 금기를 굳건히 지키고 유지해나가는 일은 한편으로는 사회 전체의 피로를 누적시키는 일이다. 금기에 대한 위반이 사회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하나의 숨구멍을 트는 역할로서, 혹은 사회적 정화장치로서 작용하고 마련되기도 한다. 이는 무질서를 통해 질서를 회복코자 하는 것인데, 무질서의 시공간으로서 마련되는 위반은 한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재질서화 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5가지 정도의 위반의 차원들이 상정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서사체들에서 금기 위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위반의 성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4. 전통서사체에 나타나는 금기 위반의 유형과 성격

1) 신성성의 공고화

이 장에서는 금기에 대한 위반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금기의 당위성과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함을 부각시키는 요소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런 종류의 금기와 위반의 이야기는 주로 신 중심의 이야기이거나 신에 의해서 인간의 질서가 마련되는 이야기로서 신화가 대표적이다.

신화는 인간의 원초적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로서 우주의 기원, 신이나 영웅의 내력과 사적(事績), 민족의 태고 때의 역사 따위가 주된 내용이 된다. 신화는 신적 존재와 그 활동에 관한 이야기이며, 여기에는 우주의 창생과 종말에 관한 우주신화와 천지일월성신에 관한 천체신화 및 국조신화 등이 포함된다. 설화가 신화, 전설, 민담으로 이루어진 한 민족 사이의 전래 되어 오는 이야기의 총칭이라고 할 때, 신화는 주로 신격(神格)을 중심으로 한¹⁷⁾ 하나의 전승적(傳承的) 설화이다.

신은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정의되기도 하나 신성한 존재이고 그 징표는 제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신화는 인간사회에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말이 된다. 제사를 받는 신은 공동체에서 거룩한 존재로 숭앙되는 존재이면서 공동체의 번영과 행운을 관장하는 권능을 지닌다. 그래서 가족공동체에서는 가족의 건강과 번성을 위하여 조상제를 모시고 마을에서는 주민의 안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하

17) 강재철은 기왕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설화를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누고, 전승자의 태도 시간과 장소, 증거물, 주인공의 행위, 기능면 등을 기준으로 각 특성들을 정리하였다. 신화는 이야기의 시공간과 주인공, 전승자의 태도 모두 신성성을 바탕으로 한다. (강재철, 『설화의 개념과 용어』, 『한국설화문학의 탐구』, 단대출판부, 2008, 28~32쪽.)

여 동신제를 지낸다. 여기서 적극적 기원으로서의 주술이 있고 이때 이 제의 속에서 강력한 금기들이 지켜진다. 가령 특정장소의 출입을 엄금하거나, 특정 음식이 금기되기도 하고, 제주(祭主)를 격리시키기도 한다. 또한 부부관계, 월경 등을 부정한 것으로 기피하거나 말을 못하게 하기도 한다. 제의 기간 동안의 이런 금기들이 엄격히 지켜지는 모습은 모든 문화가 공통적으로 지닌 특징이다.

금기를 지키는 일은 신격을 믿고 그러한 세계관 속에 살고 있음들 드러내는 것이다. 신화는 그러한 믿음과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이므로, 신격과의 직접적 교통이 있는 이야기 속의 금기는 위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금기가 위반된다는 것은 곧 신격 혹은 천상으로부터 마련된 질서가 깨지는 일이므로 태초의 세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신화적 이야기 속에서 이런 위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국시조신화는 건국을 주도한 부족집단의 신화가 국조신화로 수용된 것이다.¹⁸⁾ 우리나라의 신화는 대부분 시조신화들이고 건국신화와 같은 국조신화가 대표적이다. 국조신화는 한민족의 기원을 신성스럽게 펼치는 이야기로서 여기에 나타나는 금기는 신성함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강력하게 지켜진다.¹⁹⁾ <단군신화>에는 곰과 호랑이에게 쑥(靈艾一炷)과 마늘(蒜二十枚)를 먹으며 삼칠일 간 일광(日光)을 피해야 하는 금기가 제시된다.

“때마침 환웅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백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18) “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 편), 국립민속박물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20469&cid=50223&categoryId=51051>>.

19) 이는 앞의 금기 개념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금기형성의 한 방향은 성스러운 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피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곰은 약속한 지 삼칠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지키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²⁰⁾

쭈과 마늘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약제이며 신령스런 성질의 음식이다. 음식을 먹는 일은 생명을 지속하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일상적인 것이다. 그런데 일반의 음식을 기피하고 마늘과 쭈만을 먹는 일은 신성성에 다가가는 행위이며 세속적인 식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금기는 일상성을 벗어난 대단히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요구한다. 한편 일광기피 금기 역시 일상으로부터 격리된 폐쇄 공간에서 시련의 과정을 겪어내고 견디어야 함을 말한다. 이 같은 공간은 격리생활의 제의적 구술상관물²¹⁾이라고 할 만한데 이런 금기의 두 조건들은 묵은 상태를 버리고 새로운 상태 혹은 지위를 얻게 하는 통과제의를 의미하는 과정이다. 금기를 지키는 일이 이토록 어렵게 제시되는 까닭은 새롭고 숭고한 질서 속에 편입되는 일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이러한 금기는 국조탄생의 숭고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금기를 위반하지 않는 일은 개체로서는 신성성의 자격을 부여받는 일이며 신화적 질서를 유지시키는 일이다. 이를 통해 <단군신화>에서 웅녀는 천제의 자손과 혼인할 수 있게 되고 천통(天統)을 이을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단군신화>에서 호랑이는 주목받지 못한다.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랑이는 새로운 질서에 합류하지 못하고 다시 원래의 세속의 세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단군신화>에서 곰만 등장해도 될 터인데 굳이 호랑이를 등장시킨 것은 곰의 행위를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이며 신성성을 얻기 위한 과정이 매우 어려움을 강

20) 『三國遺史』 권1 『古朝鮮』條.

21) 김승찬, 『민속학 산고』, 제일문화사, 1980, 130쪽.

조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따라서 <단군신화>는 금기를 지킨 곰과 금기를 위반한 호랑이 모두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이어지는 신성한 혈통과 그러한 세계의 질서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리스로마 신화에서는 신성성의 강화를 위해 금기를 위반한 이에게 강력한 처벌이 주어지는 장면들을 담고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주신(主神) 제우스가 감추어 둔 불을 훔쳐 인간에게 내줌으로써 인간을 위해 금기를 위반하였다. 불을 도둑맞은 제우스는 판도라(Pandora)라는 여성을 만들어 프로메테우스에게 보냈다. 이때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는 형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아내로 삼았는데, 이로 인해 ‘판도라의 상자’ 사건이 일어나고, 인류의 불행이 비롯되었다.

오르페우스 역시 금기 위반 때문에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명계의 왕 하데스로부터 죽은 아내를 구하여 지상에 돌아갈 때까지는 아내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어긴 탓으로, 에우리디케는 다시 명계로 사라진다. 오르페우스는 나중에 트라키아 여인들의 원한을 사서 죽음을 당하고 시체는 산산조각이 되어 하프와 함께 강물에 던져진다. 이들 천상이든 지하이든 신들의 세계와 그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금기 위반은 이처럼 가혹한 처벌로 끝난다. 강력한 처벌은 신성한 질서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계이며 신성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의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남매혼 설화>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신성성의 강화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남매혼 설화이면서 인간들이 자손을 퍼뜨리는 이야기여서 신화적 성격이 강하다. 이 설화에는 남매 간의 근친교합의 장면이 나온다. 근친상간은 “한국에서는 특히 대기(大忌)의 대상”²²⁾이다. 그러나 이 설화는 연관되는 모티프를 가진 <달래고개 설화>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두 이야기 모두 남매 간의 성이 중요한 모티프이지만, <달래고개

22) 장주근, 『풀어 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2000, 34쪽.

설화>는 성욕이라는 본능적 욕구가 서사전개의 주된 요소이지만 <남매 혼 설화>에서는 성적 욕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명분을 내세운다. 혼인은 인간의 후손이 멸절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선택인 것이다. 이를 위해 남매는 하늘의 의사를 묻는다. 즉 천신이라는 초월적 존재와 소통함으로써 자신들의 혼인에 대한 허락과 더불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금기를 인간 스스로 깰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힘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금기가 허물어져야 하는 것이다.²³⁾ 더불어 이 과정에서 남매는 극심한 갈등과 시련을 겪는다는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전략) 사람은 그림자도 없었다. 이대로라면 사람의 자취는 영 끊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남매가 결혼할 수는 없었으므로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없는가 찾아 헤맸으나, 그 동안에 나이만 들었을 뿐 소용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절구 한 짝씩을 나누어 갖고 (후략)²⁴⁾

이 설화에서는 근친혼이 금기의 위반이지만 그 이유가 개인 차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 인류의 존속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 설화에서 성적 충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같은 점들로 보아 <남매 혼 설화>에서의 금기 위반은 천상의 신적 존재에 의해서 허락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인간의 질서는 천상의 질서에 속하고 조정되는 것임을 보이고 있다. 또 인간이 만든 금기마저도 천상에 의해서

23) 이향애, 『한국 홍수설화 연구』,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43~44쪽. 이향애는 이에 덧붙여 천신과의 소통에 성공했다는 것은 천신이 단순히 혼인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근친상간의 금기를 파기해도 된다는 허가이며, 이는 남매를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장애물이 사라짐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24) 강은혜, 『한국설화문학연구』, 계명대출판부, 2006, 231쪽에서 재인용.

는 파기될 수 있음을 보여 천상적 질서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인간 한계에 대한 도전과 좌절

앞선 장에서는 주로 신화 속에서의 이야기, 신과 교통하는 이야기에 나타나는 금기 위반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에 비해 여기에서는 신 자체는 등장하지 않고 신의 대리적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나타나는 금기 위반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설이나 민담에는 금기를 비롯하여 신이한 탄생, 기아(棄兒), 변신, 원조자, 혼인, 주술적 도피 등 다양한 모티프들을 통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고 서사과정의 흥미를 유발하며 서사진행의 지연효과를 창출하기도 한다. 그런데 금기가 나타나는 전설이나 민담들에서는 주인공이 금기를 침범하고 도전하지만 결국은 좌절되어 비극적인 결말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신적인 영역을 넘보다가 성스러운 영역으로 이르지 못하고 좌절되는 경우에는 비장미를 느낄 수 있기까지 하다. 같은 맥락에서 최민경은 금기설화 속에서 금기모티프는 제시된 금기를 지킴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인간적 속성에 의해 파기되면서 더 큰 의미 지닌다고 보았다.²⁵⁾ 금기는 제시되는 상황에서부터 파기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다.

『高麗史』 「世系」에 전하는 <작제건 설화>에는 ‘보지 말라’는 전형적인 금기가 등장한다. 이 금기는 작제건의 아내인 용녀가 자신의 본 모습인 용으로의 변신을 보이지 않으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용녀가 자신의 신성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금기가 위반되자 용녀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고 작제건의 결혼생활은 끝난다. 이후 금기를 어긴 작제건은 다시는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장갑사에서 불경을 읽다 죽는다.

25) 최민경, 『금기설화의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10, 68쪽.

결국 <작제건 설화>에서 금기의 위반은 작제건의 인간적인 한계를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인간인 작제건이 용왕의 딸과 혼인을 함으로써 초월적 질서 편입을 시도하지만 그것은 금기를 지키는 조건 내에서만 허용된다. 인간적인 본성으로 그 금기를 위반하는 순간 초월을 향한 넘봄은 순식간에 좌절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이는 지상회귀형 <나무꾼과 선녀>이야기와는 큰 차이가 있다. 선녀와 다시 재회하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인간적 소망이 투영된 것이다. <작제건 설화>에서는 이 같은 재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인간의 영역과 신적인 영역 간에는 여전히 커다란 상거(相距)가 혹은 경계가 있음을 작제건의 금기 위반이 말해주고 있다.

<장자못 전설>은 세계적 분포를 보이고 있는 이야기로 『구비문학대계』에만도 60편 가량의 각 편이 보고되어 있고 여타 자료집을 포괄할 경우 각 편수가 백편을 상회²⁶⁾한다고 한다. <장자못전설>은 성과 속의 성격이 이중적이고 혼효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좀 더 신성지향적이라고 할 만하다. 전설에서는 중이 초월적 존재로 나타난다.²⁷⁾ 중의 시주행위는 인간을 시험하고 선행과 악행에 따라 선과 악을 나누고 징치하는 역할을 한다. 중의 시주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용소 근처에는 절이 많은 불타산(佛陀山)이 있고 중은 장자의 인색함을 알고 불타산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시주하러 간 것이다.

한편 인색한 장자는 중에게 쇠뿔을 묻히기도 하는데 이는 일종의 신성 모독적인 행위이고 그런 면에서 금기를 위반한 행위이다. 이로 인해 장자

26) 신동훈, 『설화의 금기화소에 담긴 세계인식의 층위-장자못 전설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33, 비교민속학회, 2007, 417~442 참조.

27) 그러나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 자체는 아니고 이승이나 도승의 형태로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는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할 뿐더러 세속의 모든 재산을 상징하는 그의 집터가 연못이 되어버리는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인간과 중은 이질적인 세계의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데, 세속의 인간이 초월적 성격의 존재인 중을 존중하기는커녕 함부로 대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장자못 전설>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는 중을 통해 제시된 구원의 가능성을 얻기 위한 기회이며 신적 존재가 금기의 조건으로 인간에게 구원을 주려하는 일종의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금기마저 인간적 속성으로 인해 깨뜨려지게 되고 며느리는 돌이 되고 만다. 이야기 중에서 나타나는 인간적 속성이란 떠남에 대한 두려움(추방이나 격리), 낯선 곳으로의 이동, 혈육에 대한 걱정, 미련, 호기심, 의지의 나약함, 세속에 대한 미련 등일 것이다. 특히 이야기 속에서 시아버지인 장자는 수천 석 지기의 부자이며 크고 좋은 집을 가진 장자(長子)²⁸⁾이므로 며느리가 살고 있었던 환경이 매우 부유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승이 이른 대로 겨우 몇 가지만 가지고 불타산 쪽으로 미련없이 떠나가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명주를 짜던 명주 도투마리를 끊어서 이고 불타산을 향해 달음박질을 하는 상황은 며느리의 착한 성정과는 무관하게, 인간적인 욕심을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또 장자가 집 즉 자신이 살아온 터전을 송두리째 잃는다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모으고 이룬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이다.

금기의 위반은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좌절된다.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도전은 신성성이 강한 이야기에서는 신격의 마나 혹은 처벌의 정도가 너무나 강해서 위반의 시도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장자못 전설>에서 중은 신성적인 성격을 지니고는 있지만 인간의 모습을 나누어 가진 존재로 등장하므로 그만큼 위반의 시도도 쉬워진다고 하겠

28) 부자를 점잖게 부르는 말이다.

다. 그러나 여전히 신적인 속성에 대한 도전은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한다. 그렇지만 초월적 세계를 넘보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는 그럼에도 반복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신동훈은 인간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여, 설화 속의 금기를 신적 질서에 의해 설정된 경계로 보기보다는 인간의 길과 또 다른 인간의 길 사이의 분기점으로 본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²⁹⁾ 이러한 해석은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세계, 새로운 삶에로의 방향, 구원으로 가는 가능성이 제시되지만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다보는 모습처럼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위반을 통한 인간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도전과 좌절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삶의 깨달음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3) 욕구의 가상적 실현

금기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규칙이다. 금기를 위반하면 위반한 스스로도 마음에 꺼려함이 생기고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지만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처벌의 주체는 신적 존재일 수도 있고, 인간 공동체에서 형성된 금기라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처벌의 주체가 된다. 위반에 대한 처벌이 따르는 것은, 금기의 위반은 공동체 전체의 안위에 위해를 미칠 수 있고 공동체의 질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의 금기들을 지킨다. 그러나 금기를 지키는 일은 끝없이 충동을 억누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동의 욕구를 해소할 만한 수단을 모색하게 된다.

시는 순간적인 감정을 가상의 세계를 통해서 가상적으로 표백(表白)하는 문학 형식이다. 님은 떠났지만, 흐르는 세월을 어찌할 수 없지만, 시의 세계를 통해서 떠난 님을 불러 만나고, 지난 세월로 돌아갈 수도 있다.

29) 신동훈(2007), 앞의 논문, 419쪽.

서사체도 마찬가지다. 서사체는 허구를 바탕으로 개연성과 필진성 혹은 상황에 따라 환상성을 엮어 꾸며 만든 이야기다.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천상이나 지하세계와 같은 별천지를 거닐기도 하고,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등장인물을 통해 가상적으로 실현해 보기도 한다. 이야기는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인간의 근원적이고 일상적인 금기들을 어겨볼 수 있는 가능한 시공간을 제공한다. 보면 안 되고, 가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 속에서는 보고, 가고, 먹어 볼 수 있다. 금기의 위반이 나타나는 이야기들에서 이러한 인간들의 욕망이 투영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 같은 금기의 이야기 속에서는 위반에 대한 처벌은 현저하게 약하게 나타난다. 욕구의 실현에 무게가 실려있는 것이므로 처벌보다는 처벌에 대한 보상에 더 초점이 놓인다. 그렇기에 이런 유형의 위반 이야기는 결말이 비극적이지 않고 행복한 결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신탁이나 초월적 질서에 의하기보다는 인간이기에 생기는 욕망과 갈등이 서사 진행의 주요한 동인이 된다.

먼저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구렁덩덩신선비 설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내용을 서사단락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³⁰⁾

1. 한 늙은 여자가 구렁이를 낳았다.
2. 부잣집 셋째 딸이 구렁이를 구경와 보고 비범함을 발견한다.
3. 구렁이가 이웃집 셋째 딸과 혼인시켜 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한다.
4. 구렁이가 허물을 벗고 신선비가 되어 아내에게 허물을 잘 간직하라고 한다.

30) <구렁덩덩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1-9, 453~460쪽.

5. 언니들이 와서 신선비의 허물을 빼앗아 불태우자 신선비는 사라진다.
6. 신선비를 찾아 나선 아내가 원조자의 도움으로 신선비를 만난다.
7. 신선비의 시험을 통과한 아내는 재결합하고 행복하게 산다.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에서 금기는 위반되지만 좌절이나 처벌로 끝맺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결합의 기회가 주어지고 시험에 통과하여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앞 선 이야기들의 예와는 사뭇 차이가 나는데, 이는 설화 수용자들 즉 인간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현실이나 운명 앞에서 나약하게 좌절하고 마는 인간 본연의 한계를 금 그어 제시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도리를 찾고 한계를 감내하며 체념하기 것보다는, 새로운 방도를 찾을 기회를 주고,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이는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욕망의 추구와 실현이라고 할 만하다. 효용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야기의 흥미 측면의 쾌락효과와 노력에 대한 보상이란 측면의 교훈효과도 같이 이야기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선비의 아내인 셋째 딸은 금기를 어겼지만, 신선비는 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길을 떠난다. 신적인 금기를 위반했을 때와는 달리 인간적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금기의 위반은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적극적으로 신선비를 찾아나서고 종국적으로는 행복한 결말로 귀결된다. 단 한 번의 위반으로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기회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서 실제 금기가 위반된 원인은 셋째 딸인 아내가 아니라 두 언니들의 계략에 의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인간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면모와 상황이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렁각시>에는 우리네 평범한 인간들의 꿈이 잘 나타나 있다. 가난하

고 나이 많은 농투성이 사내에게 우렁각시가 나타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가당치 않은 설정이다. <우렁각시>에서도 사내는 금기를 어긴다. 그야말로 꿈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금기의 뚜껑을 열고 그 속을 들여다보고 싶은 인간의 호기심은 여지없이 작용한다. 임금님 귀가 나귀처럼 길어졌다는 것을 안 복두장이가 대나무 밭에서 ‘임금님 귀는 나귀 귀’라고 외쳤다는 이야기³¹⁾나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 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금기를 위반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을 대변해 준다. <우렁각시>에서도 위반의 결과로 아내를 잃지만 <구렁덩덩신선비>처럼 총각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이야기들³²⁾이 있어서 인간적인 면모의 투영을 읽을 수 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도 위의 이야기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읽힐 수 있다. 선녀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는 인간적인 모습의 나무꾼은 어찌할 수 없는 한계와 결함을 지닌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기도 하는데³³⁾ 그 중 ‘나무꾼 지상회귀형’ 이야기에서는 인간적인 체취가 더욱 강하게 풍긴다. 날개옷을 주어 아내와 이별할 뿐 아니라, 사슴의 도움으로 승천하지만 다시 지상의 흠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 그리고 지상 음식을 먹어 두 번째 금기를 위반하는 장면, 팔죽을 말 등에 떨어뜨려 천마에서 떨어지는 모습 등에서는 아무리 선녀가 있고 하늘과 땅을 수시로 오르내리는 장면이 있다 하더라도 천상적 모습보다는 인간적 모습이 훨씬 더 부각된다.

31) 『三國遺事』 卷二, 『四十八景文大王』條.

32) <우렁각시> 각 편들에는 비극적 결말인 경우가 많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는 원님과 시험을 하여 이기거나 대궐로 간 아내를 따라가 아내를 찾고 임금이 되기까지 한 이야기가 있다.

33) 양지선,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선녀와 나무꾼』을 이용한 표현교육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2권 4호, 정신문화연구소, 2009, 349쪽.

이상 세 작품들을 중심으로 인간 욕구가 가상적으로 반영되어 금기가 위반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작품에는 금기에 대해 무모하리만큼 충동적인 인간의 면모가 잘 반영되어 있으면서 또한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도 보상심리를 추구하거나 부가적인 기회를 부여받는 일 등 지극히 인간적인 심리가 배여 있다. 그만큼 금기는 초월적인 영역에서 점차 인간의 영역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듯하다.

4) 당대 질서에 대한 도전과 변화 지향

한 시대의 지배이념이나 정치적 권력은 새로운 금기를 발생시킨다. 지배이념에 의해서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우리 것과 남의 것, 중심과 변두리 등의 구분이 생긴다. 지배이념에 의해서 틀짓기가 생겨나고 그 틀 바깥의 것들은 부정하거나 불결한 것 혹은 위협적인 것이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서 배제된다. 그 배제의 영역은 금기의 영역과 겹치게 된다. 정치권력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금기를 생산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배이념이나 권력에 의한 금기는 한동안 지속되지만 그것이 부조리하거나 공동체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위반이 일어나게 된다. 그 위반의 전형적인 한 패턴이면서 선도적으로 일어나는 위반의 방식은 문학이다.

금기의 위반은 정체성 변화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금기 수용자들의 정체성에 변화가 생기면 금기의 위반이 시도된다. 신 중심의 세계관이 약해지면서 전통서사체들은 인간 중심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이른바 신성소설의 세속화³⁴⁾가 진행되는 것이다. 조선조도 후기로 가면서 사람

들의 사고가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경제 질서가 변하고 실학의 영향 등으로 개인에 대한 자각이 생기면서 신분제도와 그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부조리한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성장하였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는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는데 조선조 고소 설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사고의 각성이 현실의 금기적 경계를 침범하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양반을 비판하고 신분제도에 반발하는 담론들은 조선조 지배이념이 낳은 금기에 맞서려는 시도들이다. <춘향전>의 춘향이나 <홍길동전>의 홍길동, <허생전>의 허생 등과 <홍계월전>과 <정수정전>, <장국진전>, <황장군전> 등 군담소설 속의 여성영웅들은 기존질서가 마련한 넘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벽을 넘으려고 하는 인물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당대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자는 간구함에서 비롯된 위반의 이야기들이다.

금기의 위반은 공동체의 안위를 침해하고 안정적인 존속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고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위반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일 수 있다. 위반은 부조리한 당대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변화를 지향하는 공동체의 의식적 공감대로써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당대에 만들어지고 널리 읽힌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의 질서를 파기하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욕구가 증대된 것이며,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민중들의 의식이 이같은 위반의 서사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갈등해소와 엔트로피의 완화

금기를 지키는 일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개인에게 쌓인 스트레스

34) 이상택, 『고대소설의 세속화과정 시론』, 이상택·성현경, 『한국고전소설연구』, 새문사, 1983, 68~87쪽.

는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 휴식 혹은 술자리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키거나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러나 한 사회에 누적된 스트레스는 해소하기 어렵다. 질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조금씩 무질서로 향하게 되어 있다. 금기를 지키는 일은 한 사회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해소시켜 주지 않으면 한 사회의 전체 질서가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사회는 질서를 위해 위반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위반의 장치 혹은 위반의 문화적 제도화는 위반이고 이전의 질서를 전도시키는 무질서로 마련되지만 그러한 위반의 시공간을 통해 한 사회는 기존의 질서를 다시 튼튼히 할 수 있게 된다. 탈춤이나 축제 또는 야자타임이나 술판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들을 통해 기존의 질서가 다시 공고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탈춤이나 축제와 같은 역전과 난장의 무질서의 시공간을 통해서 한 사회는 이전의 질서를 다시 가지런히 하는 것이다. 이는 질서-무질서-재질서의 과정이며, 무질서로써 재질서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조선조에는 <어우야담>, <청구야담>, <동야회집>, <고금소총>, <파수록>, <동패낙송>, <기문총화> 등과 같은 수많은 한문단편류의 이야기집이 있고 이들 속에는 소화나 골계담, 기담 등 기존질서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주류가 아니어서 배척받고 도외시 되었던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근엄하고 지체 높은 사대부들이 현학과 어리숙함으로 희화화되기도 하고 아전과 같은 트릭스트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곤욕을 치르거나 낭패를 당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한다. 노비나 아녀자 혹은 중이나 이인(異人)과 같은 변두리의 인물들이 중심인물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조리를 고발하기도 한다. 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당대에 관습 상 은밀히 감춰져야만 했던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노골적인 육담이 넘쳐난다. 이런 이

야기들은 많은 경우 웃음을 가장하고 있다. 위트는 금기를 위반하는 전형적인 한 수단이다. 위트는 웃음을 빙자하여 기존의 권위나 부당함에 도전한다. 그 도전은 직접적이기보다는 우회적인 것이지만 처벌을 피하면서 가장 쉽사리 위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서는 당대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이지만 이런 부정, 불륜, 천박함 등의 역전과 뒤섞임의 위반적 이야기들을 통하여 한 사회는 카타르시스를 얻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강화하는 구실을 한다. 그런 면에서 위반의 이야기들은 일종의 사회적 “기분전환장치”³⁵⁾로서 기능하며 이 위반을 통해 한 사회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풀고 나누고 결속한다. 따라서 이 위반의 이야기들은 사회의 재질서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그래서 금기의 위반이 한 사회의 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 개인들의 잠재적 욕구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 결론: 금기 위반 편차의 함의

신화는 세계의 원리와 자연의 생성에 대한 원초적인 이야기이고 설명이지만, 그래서 신성한 이야기이지만, 인간들을 위한 이야기이며 인간들에 의해 전승되고 믿어지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신화 속에는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수직적 관계로서의 제의와 신탁이 있고, 또 동시에 인간들이 인간끼리의 수평적 연계 속에서의 신성한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행위로서 금기가 있다.

그러나 신화에서 전설이나 민담으로 또 소설과 야담으로 이어지는, 즉

35) 야마우치 히사시, 『터부의 수수께끼』, 정성호 역, 사람과 사람, 1997, 231쪽.

신에서 인간의 이야기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금기의 성격도 변화한다. 그것은 성에서 속으로, 혹은 신성성의 세속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자연스럽게 예견되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신화·전설·민담을 아우르는 설화 들 및 이후의 전통서사체들에서는 실상 금기 자체보다는 금기에 대한 위반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금기냐의 문제보다도 그런 금기가 지켜지는가 혹은 위반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위반되고, 위반의 결과는 어떠한가의 문제에 더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금기와 위반의 문제는 서사체의 진행에 있어서 작용하는 특정한 효과나 기능 주제나 효용 등의 측면 못지않게 면밀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세계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인식과 태도를 함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보고는 우리 전통 서사체들 속에서 보이는 금기에 대한 위반의 여러 차원과 그 위반의 변별되는 성격들을 살펴보고 위반의 편차들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금기 위반의 양상들을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보고, 그를 바탕으로 위반의 성격을 신성성의 공고화, 인간 한계에 대한 도전과 좌절, 욕구의 가상적 실현, 당대 질서에 대한 도전과 변화 지향, 갈등 해소와 엔트로피의 완화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소항목의 제목들이 말해 주듯이 금기의 위반에는 천상적 질서와 현세적 질서, 도전과 좌절, 당위와 욕망, 부정적 기능과 긍정적 기능 등의 대립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계 맺고 있다. 금기의 속성이 양가적이었던 것처럼 위반의 양상과 의미도 양가적이다. 또한 금기와 위반의 관계는 마치 태극의 음양처럼 서로 밀어내는 듯 끌어안고 있다. 위반은 질서를 침범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전통서사체들에서 보이는 금기와 위반의 이야기들은 이러한 역동성을 고려하면서 그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마무리하는 마당에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본 논의가 밑받침을 치밀히 하고 충분히 하기 보다는 너무 큰 그림을 그리고 거칠게 일반화한 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시론적인 성격이었다고 애써 자위하면서, 면을 달리하여 몇 부분으로 쪼개어 부족함을 채우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은혜, 『한국설화문학연구』, 계명대출판부, 2006.
- 강재철, 『한국설화문학의 탐구』, 단대출판부, 2008.
- 김승찬, 『민속학 산고』, 제일문화사, 1980.
- 김열규, 『한국 신화와 무속연구』, 일조각, 1977.
- 김향숙, 『한국 금기Motif 수용설화 고찰』,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출판부, 1980.
- 蘇鈺崙, 『韓·中 産俗禁忌 比較研究』,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4.
- 신동훈, 「설화의 금기 화소에 담긴 세계인식의 층위」, 『비교민속학』 33, 비교민속학회, 1997, 417~446쪽.
- 양지선,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선녀와 나무꾼」을 이용한 표현 교육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2권 4호, 정신문화연구소, 2009, 341~361쪽.
- 이상백, 「한국 금기설화의 연구」, 『어문학교육』 4, 어문학교육학회, 1981, 339~365쪽.
- 이상택, 「고대소설의 세속화과정 시론」, 이상택·성현경, 『한국고전소설연구』, 새문사, 1983, 68~87쪽.
- 이향애, 『한국 홍수설화 연구』,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정종진, 「금기 형성의 특성과 위반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의미」, 『인간연구』 23호, 가톨릭대인간학연구소, 2012, 81~104쪽.
- 최민경, 『금기설화의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최창모, 『금기의 수수께끼』, 한길사, 2003. 1~349쪽.
- 야마우치 히사시, 『터부의 수수께끼』, 정성호 역, 사람과 사람, 1997. 1~254쪽.
- Douglas, Mary, *Purity and Danger: An ananlysis of the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유제분·이훈상 역, 『순수와 위험』, 현대미학사, 1997, 1~316쪽.
- Eliade, Mircea. 『종교형태론』, 이은봉 역, 한길사, 1996, 1~616쪽.
- Frazer, J. G., *The Golden Bough*, 신상웅 역, 『황금가지』, 동서문화사, 2007, 1~1085쪽.

Freud, Sigmund. *Totem und Tabu*, 강영계 역, 『토텐과 터부』, 지식올만드는지식, 2009, 1~115쪽.

Kraft, Hartmut, *Tabu: Magie und Soziale Wirklichkeit*, 김정민 역, 『터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거의 모든 것』, 열대림, 2005, 1~336쪽.

Turner, Victor, *From Ritual to Theatre*, 이기우·김익두 역, 『제의에서 연극으로』, 현대미학사, 1996, 1~254쪽.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Differences of Violating the Taboo
in Korean Traditional Narratives

Jeong, Jong-jin

This paper considers the several levels and the distinctive features of violating the taboo in korean traditional narratives.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I tried to distinguish the five dimensions of violating the taboo. The five dimensions of violating the taboo are 1. strengthening of the sacredness, 2. challenges and setbacks for human limitations, 3. virtual realization of desire, 4. challenge for contemporary order and 5. relieve and alleviate the conflict and mitigation of entropy.

The violation of taboo have a complex relationship. It is, for example, 'heavenly order and realistic order', 'challenges and frustrations', 'oughtness and desire' and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

The meaning of violating the taboo is ambivalent. Violating the taboo is violation of the order but at the same time, on some occasion it creates an order. In order to understand violating the taboo in korean traditional narratives, it should be considered its dynamic and multiple meanings of violating the taboo.

Key Words taboo, violation, order, ambivalence, traditional narratives.

논문투고일 : 2015. 5. 8
심사완료일 : 2015. 5. 24
게재확정일 : 2015. 6. 4

